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1	①	2	③	3	②	4	④	5	②
6	⑤	7	④	8	①	9	①	10	⑤
11	⑤	12	②	13	③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③	19	④	20	②
21	①	22	④	23	⑤	24	③	25	④
26	①	27	③	28	③	29	②	30	④
31	⑤	32	④	33	⑤	34	④		

[독서 이론]

[1~3] <출전> 박정진 외,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진로 독서'는 '독자'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진로 독서'를 통해 '진로 선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A]에서 '잠정기의 독자'는 '진로 선택'에서 '직업'에 서 요구하는 조건 등과 같은 현실적 요인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하였고, '토크' 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현실적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탐색'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잠정기의 독자'가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진로 독서'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환상기의 독자'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없이' 놀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욕망을 표출한다고 하였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진로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잠정기의 독자'는 '흥미, 능력, 적성 등 주관적 요인을 중시'하여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였고, '진로 독서'를 할 때 '주관적 요인을 바탕으로 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흥미, 능력, 적성 등'은 '주관적 요인'이므로 적절하다. ④ [A]에서 '현실기의 독자'는 진로를 선택할 때 '특정 진로에 대한 경험을 쌓고 진로 결정을 구체화하여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려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A]에서 '현실기의 독자'는 진로 독서를 할 때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 지속적인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인문, 사회, 과학 등'은 독서의 '다양한 분야'이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독서를 통해 진로 분야의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진로 탐색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진로 독서'에서의 '성공 경험'이라고 하였고, 1문단에서 '진로 독서'는 '간접 경험'이라고 하였다. ㉔은 '학생'이 '모의 창업 체험'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꿈인 기업인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한 진로 탐색 활동으로 학생의 자발적인 진로 탐색 과정은 맞으나 궁금증 해결로 인한 학생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독자가 진로 선택의 준비에 ~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생리적 작성'이라고 하였는데, ㉔은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의 준비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느끼는 불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독자가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 ~ 말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을

'언어적 실득'이라고 하였는데, ㉔은 학생이 책을 읽으며 평소 닳고 싶었던 성공한 기업가인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고 하여, 언어적 실득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독서를 통해 책 속 인물의 성공을 ~ 긍정적 자기 기대를 갖는 것'을 '대리 경험'이라고 하였는데, ㉔은 '학생'이 책 속 인물인 기업가의 성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책을 읽은 후 '나도 것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서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기 기대'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고, '독자는 성공적인 진로 독서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㉔은 '학생'이 책을 읽은 후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 낼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4~9] <출전> 조만희,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는 원산지를 판정할 때 검토해야 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중심 화제로 이와 관련된 '역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등의 개념들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나)의 6문단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 협정별로 산업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에서 '모든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4문단에서 '자유 무역 협정에서 ~ 허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1문단에서 '자유 무역 협정은 ~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1문단에서 '역내국들은 ~ 무역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가)의 3문단에서 무역 전환 효과는 '역내국 상품이 ~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였고, (가)의 2문단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역내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 생산 요소를 집중'한다고 하였다. ㉔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나일론 실 생산 비용이 병국이 10, 을국이 15로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무역 전환 효과로 갑국 내에서 을국의 나일론 실이 가격 경쟁력에서의 비교 우위를 지니게 되었고, 이후 갑국과 을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자국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갑국 내 생산 요소를 집중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역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에서 역내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 생산 요소를 집중'한다는 내용을 통해 갑국에서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화하는 것이 ㉔ 이후, 갑국과 을국이 자국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자국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생산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면서 상호 간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무역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자국에서 ~ 동질 상품으로 대체'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갑국의 나일론 실을 대체하여 을국이 나일론 실을 수출하게 되면서 역내국 간에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역내국들은 '자국에서 ~ 동질 상품으로 대체'한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저렴한 동질 상품인 갑국의 염료로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3문단에서 무역 전환 효과는 '역내국 상품이 ~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 감소한 것은 갑국의 입장에서 을국의 나일론 실이 병국의 나일론 실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나)의 5문단에서 세번 변경 기준은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고 하였고 스타킹에 사용된 나일론 실은 역내인 을국에서 생산된 재료이다. 따라서 나일론 실과 스타킹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통해 세번 변경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3문단에서 '역내 가공 원칙이란 ~ 원칙이다'라고 하였고, 스타킹은 가공 공정이 갑국 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된 상품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3문단에서 충분 가공 원칙에 따르면 '협정에서는 ~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스타킹은 <갑-을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 중 기본 원칙에 제시한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가공한 상품이 아니므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나)의 4문단에서 '완전 생산 기준은 ~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였고, 스타킹은 역외인 병국에서 생산된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이므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나)의 5문단에서 '가공 공정 기준은 ~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였고, 스타킹은 <갑-을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 중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제시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을 갑국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가)의 4문단에서 무역 굴절 효과는 역외국이 '역내국 간의 무역 혜택을 이용하여' '자국에 높은 관세를 ~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고, (나)의 3문단에서 역내 가공 원칙에 따르면 '상품의 가공 공정의 일부가 ~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 중 역내 가공 원칙을 적용하여 역외국의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관세 이익을 받으려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낮은'은 '높낮이를 켈 수 있는 수치나 정도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를 의미하므로 '활동이나 감정이 왕성하지 못하고 침체해 있다.' 혹은 '능률이나 성적이 낮다.'를 의미하는 '저조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감소하다'는 '양이나 수치가 줄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의거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구분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과학]

[10 ~ 13] <출전>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외과초음파학」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는 ‘혈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는 탐촉자에 저장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음향 저항은 ‘매질의 밀도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는 ‘초음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며, 도플러 효과란 ‘대상이 이동하면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초음파는 ‘주파수가 인간의 가청 범위 이상인 음파’라고 하였고,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는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이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가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여 영상화하는 과정은 크게 송신 단계와 표시 단계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산란체의 크기가 작거나 주파수가 높을수록 산란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도플러 각도는 ~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에서 ㉢에 입사될 때 도플러 각도를 60° 미만으로 유지해야 측정의 오차 값이 적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산란으로 인해 초음파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증폭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이동 과정에서 초음파의 강도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발생시키는 초음파의 강도가 ㉢에서 ㉡로 되돌아 나올 때보다 크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음향 저항의 차이가 ~ 켈을 바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바르기 이전보다 이후에 ㉢으로 더 많은 초음파가 투과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피부에 입사한 초음파는 ‘연부 조직을 거의 일정한 속도로 투과’한다고 하였으므로 ㉢에서 초음파가 거의 일정한 속도로 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적혈구가 탐촉자에 가까워지는 방향일 때는 도플러 변위가 양(+)의 값을 갖고, 그 반대는 도플러 변위가 음(-)의 값을 갖는다’고 하였고, 그래프는 ㉢에서 ㉤의 도플러 변위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탐촉자와 멀어지는 방향임을. ㉢에서 ㉤은 도플러 변위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탐촉자와 가까워지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구간의 혈류 방향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적혈구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도플러 변위의 절댓값은 크’다고 하였으므로 도플러 변위의 절댓값이 200인 ㉢의 혈류 속도보다 300인 ㉤의 혈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도플러 변위는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의 차이’이므로 도플러 변위가 0인 ㉢보다 300인 ㉤가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적혈구가 탐촉자에 가까워지는 방향일 때는 도플러 변위가 양(+)의 값을 갖’는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혈류가 탐촉자를 향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고 하였으므로 양(+)의 값을 갖는 ㉢과 ㉤ 사이는 영상 장치의 화면에 혈류 정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적혈구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도플러 변위의 절댓값은 크’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혈류 속도가 빠르면 더 밝게 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도플러 변위의 절댓값이 0인 ㉢보다 300인 ㉤에서 영상 장치의 화면에 혈류 정보의 색이 더 밝다는 것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은 ‘어디를 거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를 의미하므로, ③의 ‘지나고’와 문맥상의 의미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① 문맥상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문맥상 ‘어떤 시기나 한도를 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문맥상 ‘어떤 일을 그냥 넘겨 버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문맥상 ‘어떤 한도나 정도가 벗어나거나 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인문]

[14 ~ 17] <출전> 그레이엄 하턴, 「쿼드러플 오브젝트」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성질이 없는 객체나 객체가 없는 성질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객체에 대한 하턴의 입장은 허구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인간 역시 객체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사물은 인간이 그 본질을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객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인간 역시 객체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객체는 객체가 발산하는 정보나 담고 있는 특정한 성질을 가지며’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하턴은 이러한 관점들은 인간이 사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 바라볼 뿐 객체 그 자체로 다루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ㄱ은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나눈 뒤 그 입자를 분석하면 만물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하턴’은 3문단에서 ‘인간이 사물을 어떤 구성 요소로 분석하려고 할 때 그 구성 요소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1문단에서 ‘인간이 사물을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면 ‘그 사물의 본질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고 하였으므로 ㄱ에 동의할 것이다. ㄴ은 ‘사물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고 있고, ‘하턴’은 1문단에서 ‘인간과 사물, 나아가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고 하였으므로 ㄴ에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2문단에서 ‘인간이 사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 바라볼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ㄷ은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하턴’은 3문단에서 ‘인간이 사물을 자신과 맺는 사물의 가치나 성격으로 일반화하려고 할 때 객체는 스스로 일반화’되지 않고 ‘인간은 객체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ㄷ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2문단에서 ‘인간이 주체로서 사물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고 하였으며 ‘인간이 사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 바라’본다고 하였으므로 ㄷ에 동의할 것이다. ㄹ은 ‘사물의 본질은 사람의 구상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하턴’은 3문단에서 ‘사물은 인간이 그 본질을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2문단에서 ‘인간이 사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 바라볼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ㄹ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하턴’은 ㄷ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자료 1]에서 ‘관측선 보이저 2호’는 ‘천왕성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고, [자료 2]에서

‘A 씨’가 퇴근 후에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출판사 동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6문단에서 ‘감각 객체는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객체’이고, 실제 객체는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객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천왕성’은 ‘보이저 2호’에게 감각 객체이고, ‘영화 시나리오’는 ‘출판사 동료들’에게 실제 객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에서 ‘천왕성은 1781년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했다’고 하였고, 6문단에서 ‘감각 객체는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객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 ‘A 씨’가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퇴근 후에 영화 시나리오를 썼’고 ‘A 씨의 이러한 관심을 출판사 동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하였으며, 7문단에서 ‘실제 성질은 ~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출판사 동료들’은 ‘A 씨’의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을 모르고 있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제 성질이므로 적절하다. ④ [자료 1]에서 ‘관측선 보이저 2호는 천왕성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고, [자료 2]에서 ‘그의 출판사 동료들은 A 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7문단에서 ‘감각 성질은 객체의 성질 가운데 관찰자의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하였고 6문단에서 ‘관찰자의 감각에는 ~ 측정 기기에 의한 측정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의 ‘열은 초록색’을 관측하여 지각할 수 있었고 ‘출판사 동료들’은 ‘A 씨’의 ‘빠른 손놀림’을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1]에서 ‘관측선 보이저 2호는 천왕성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어 지구의 천문학자들에게 보냈’고 ‘그 사진을 본 지구의 천문학자들이 천왕성의 열은 초록색과 수많은 위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료 2]에서 ‘출판사 동료들은 A 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6문단에서 ‘감각 객체는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객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서 ‘객체는 다른 존재에게 파악되지 않도록 ‘물러나는’ 측면과 다른 존재에게 분석된 구성 요소 이상의 다른 무언가로 스스로 ‘드러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객체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두 측면 가운데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파악되지 않도록 물러나는 측면 때문에 인간이 객체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다.

[현대시 · 고전수필]

[18 ~ 23] <출전> 조지훈, 「묘망」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이산해, 「죽봉기」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하늘에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에서 어미 ‘-거니’를 반복하고 있다. 또, (나)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에서 어미 ‘-아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었드려 잠잘 수 없고’에서 어미 ‘-고’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 ‘너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다’

를 ‘광대무변한 우주의 한알 모래인 지구의 돌레를 찰랑이는 점시물’과 같이 작은 존재로 여기면서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니라 바다도 그러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다 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생은 갈사 록 고달프고’ ‘몸돌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이 ‘고달프고’ ‘몸돌 곳’ 없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허공에 던져진것’이 ‘나만이 아’니며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을 달, 별들과 같은 우주 안의 다른 대상들과 동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은 화자가 ‘바다 속 한점 바위에 누워’ 일게 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다는 깨달음을 드러냄으로써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B]에는 화자가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서 인식한 여러 대상의 모습이 나열되고 있을 뿐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짐작한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에 ‘편안한 짐을 떠나’ ‘산으로 간다’는 것에 [B]에서 화자가 한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는 행동의 계기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화자가 인식한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별레들’의 속성은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인식한 내용과 대비되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화자가 ‘산에서 살고 싶은’ 자신의 바람과 달리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남겨둔 채 떠’나는 행동의 이유가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었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 버릴 수 없어’서임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에 ‘이름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나는 변화는 [A]에서 화자가 ‘편안한 짐을 떠나’ ‘산으로’ 가는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은 ‘파도’가 ‘몰려와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고 넘쳐나는데’ ‘내 귀가 듣는것’이라 하였으므로 화자의 외부에서 비롯된 소리이며, ㉡은 화자가 ‘야호 외’친 소리가 ‘되돌아’는 것으로, 화자에게서 비롯된 소리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㉔는 죽봉이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납달리 시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죽봉이 장인이 만든 건축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는 이사한 집의 특징이 ‘줄고 낮’은 데다 ‘날씨가 무’덥기까지 하여 ‘뜨거운 화로에 들어간 것 같’이 힘들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㉔는 죽봉이 ‘대나무를 잘아’ 자연물을 재료로 지어졌으며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한 규모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만큼 죽봉에서 느끼는 시원함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㉔는 ‘잠이 들어’ ‘노인’과 만난 후 ‘그의 말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기지개

를 켜고 일어났다’고 한 것에서 노인과의 만남은 꿈속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가도 산에는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뗏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고 하였으므로 구체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다)에서 ‘가슴속’의 ‘누각’에서 ‘세상의 득실과 영육’이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일 뿐, 관념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며 ‘꽃과 별레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산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산의 ‘어디서나’ ‘지저귀는’ 뗏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은,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임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다)에서는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아는 ‘나’와 달리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죽봉도 ‘진흙탕과 같다’는 것을 통해 죽봉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와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서는 ‘짐을 떠나’ ‘산으로’ 가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마음이 무’집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월송정 숲속’에 새로운 공간인 ‘죽봉’을 조성하여 ‘다위를 꺾’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24 ~ 27] <출전> 김원일, 「마음의 감옥」

2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동생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동수 엄마가 어머니에게 ‘어머님, 동수 아빠를 비난 등 우리 방에서 ~ 감시받는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 것을 통해 동수 엄마는 ㉔보다 ㉔가 현구를 진정으로 원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현구가 혼수상태에 빠진 뒤 현구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현구를 ㉔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젊은이들은 현구의 가족들이 ㉔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어머니는 동수를 업고 ㉔로 가는 것에 위험을 느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현구가 다칠까 봐 걱정을 하였지만 이내 현구를 ㉔로 데리고 가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숙영이는 처음에는 걱정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현구를 ㉔에서 ㉔로 이동시키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대화의 의도 파악하기

㉔에서 창길이 할아버지는 전투경찰대원들의 행위가 불합리함을 질타하며 현구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다. 이는 현구 어머니의 행위가 불합리함을 질타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㉔에서 수사관은 학생들이 고함을 질러대며 시위를 계속하면 현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어려울 것임을 환기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계속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㉔

에서 어머니는 동수 엄마의 의견에 동조하며 동수에게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서 어머니는 동수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제는 동수가 현구가 못다 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나’는 숙영이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함께 나가자고 권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저물한 속에 복도는 ~ 나는 초조했다.’에서 복도는 최무탄 내용으로 매케하고 어둑발이 내리는 속인 것을 통해 어둑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현구가 보이지 않아 초조해지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강이 악화된 동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현구는 내게 했던 말처럼 ~ 소명을 받은 자였다.’에서 ‘나’가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한 현구를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통해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타적 삶을 산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구호가 끊긴 바깥으로 나서니 ~ 고행하는 승려를 같았다.’에서 현구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학생들을 고행하는 승려를 같았다고 ‘나’가 생각한 것을 통해 동생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의 생각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이제 현구는 우리 모두의 ~ 짓기 시작했다’는 깨달음이었다.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현구가 감옥 한 칸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가 깨달았다는 것을 통해 동생의 삶이 지닌 영향력을 깨닫게 된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그제서야 사일구 그날, 우리 모두 ~ 나는 가슴 뿌듯이 느낄 수 있었다.에서 ‘나’가 사일구 그날에 경무대를 향해 내달던 벽간 홍분이 되살아남을 뿌듯이 느꼈다는 것을 통해 울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28 ~ 30] <출전> 남도진, 「낙은별곡」

운양래, 「갑곡만영」

2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는 ‘어저 내 신세를 내 이리니 자네 들소’에서 ‘자네’에게, (나)에는 ‘허천강 건너편에 나날 뵈는 저 봉화야 ~ 편한 소식 전할쏘냐’에서 ‘봉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㉔에는 ‘동지 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해 돋도록’ 늦잠을 자며 여유롭게 일상을 만끽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㉔에는 신하와 임금의 함께 즐기던 옛 시절을 꿈에서라도 볼 수 있다면 매일 ‘밤낮 자고 싶다는 것에서 바라는 바에 대한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의 <1수>에서 ‘허천강 건너편’의 ‘봉화’를 보며 ‘목욕산’ 아래에 있는 ‘내 집’을 떠올리는 것은 변방으로 유배를 간 작가가 유배 전에 살던 집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현재 작가는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대무원에 서성이’는 사람에게 ‘내 신세’를 이르는 것은 속세에서 관직에 나간 사람들은 고단하고 피로운 삶을 살지만, 자신은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한가하고 여유

롭게 살고 있어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 작가가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봉우리로 빼어나고 경지도 뛰어’난 ‘산 속에 깃들’었다는 것에서 자연에 은거하여 사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주인옹이 명리에 뜻이 없어’서 ‘진세를 하직’했다는 것에서 부귀공명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욕심이 없어 속세를 떠난 것이 작가가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11수>에서 ‘두텁한 밝은 달을’ ‘떠가는 구름’이 가리려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에서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작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삼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겠다고 하는 것에서 작가가 삼공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편안한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나)의 <4수>에서 변방에 유배를 가 ‘가시울 에운 곳’에서 지내며 고향이 ‘가갸’다만 ‘생각이 더’했을텐데 차라리 멀어서 잘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고향을 떠나는 작가의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1 ~ 34] <출전> 작가 미상, 『보은기우록』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일은 위연청이 화제를 보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린 것이었다.’라고 하며 위연청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아버지께 말씀을 아뢰고 ‘유한 형제를 불러 자사를 찾아가 부탁할 일을 일일이 가르치고 편지를 대필한 후 잠깐 다른 고을로’ 갔다는 것에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위연청이 상량문을 지어 천금의 사례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일에 대해 ‘왕소삼이 자세히 듣고 돌아와’ 녹운에게 전했다는 것에서, 녹운이 왕소삼을 통해 위연청이 ‘천금도 거절’한 것을 알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위연청의 말에 녹운이 ‘감추었다가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했다는 것에는, 위연청이 천금을 거절한 일을 녹운이 사실과 달리 말하고 있음이 드러날 뿐 위연청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녹운이 ‘위연청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실망하고 놀’라 ‘너는 어찌 허황한 말로 나를 속이는가? 네가 그 집에 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며 왕소삼을 ‘꾸짖’고 있다는 것에서 왕소삼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위연청이 ‘천금’을 허비하지 말라는 위지덕의 말을 들은 후 ㉠이 있었음을 깨닫고 ‘큰 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불행히 생각’하는 것에서 ㉠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위연청이 ‘천금’을 허비하지 말라는 위지덕의 말을 듣고 ‘선비는 글을 짓더라도 값을 받는 것이 아닌 법’이라고 하며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천금의 사례를 받았다’는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상량문을 지은 일로 ‘천금’의 사례를 받았다는 ㉠과 관련하여 위연청이 ‘서모의 소임이 이런 일까지 참견하는 것이 아님을 어찌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에서 녹운의 언행이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대화 방식 이해하기

⑥에는 녹운이 자신이 ‘편잔’을 받은 상황에 대해 ‘영감님이 너그러운 탓’이라고 하며 위지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또한 ⑥에는 양주 자사가 ‘위지덕의 어진 마음과 재주를 본받아 위연청이 낳’다는 깨달음을 근거로 ‘세상 사람들이 위지덕을 헐뜯는 말은 대풍으로 하늘을 엿보고 조개를 던져 바다를 측량함과 같’다고 하며 위지덕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⑥에는 ‘과거 더럽게 재물을 모은 것’에 위지덕이 이전에 한 행동이 드러나 있고, ‘이런 큰 계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위지덕이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한 양주 자사의 추측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⑥에는 상대의 역할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④에는 녹운이 인물의 지위를 제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⑥에는 양주 자사가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⑥에는 ‘위지덕의 어진 마음과 재주를 본받아 위연청이 낳음을 깨달았다. 과거 더럽게 재물을 모은 것은 원래 이런 큰 계책이 있기 때문’에 위지덕에 대한 양주 자사의 생각이 드러나 있지만 양주 자사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⑥에는 녹운이 상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나타내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⑥에는 양주 자사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4. [출제의도] 의제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위지덕이 ‘재물을 아낄 때’ ‘목숨처럼’ 아꼈다는 것에 는 과거에 부의 축적을 도모했던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이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재화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위지덕이 위연청에게 ‘천금’을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이자를 처서 없애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부를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천금’을 거절한 위연청에게, 위지덕이 ‘받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는 것을 사양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가치관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위연청이 ‘화제를 보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리고 ‘유한 형제를 불러 자사를 찾아가 부탁할 일을 일일이 가르치’며 재산을 ‘관청의 쓰임에 보태’게 한 것에서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위연청이 ‘편지를 대필’한 후, 이를 양주 자사에게 보내고 자신은 ‘다른 고을로 가’ 자신이 한 일을 ‘아버지께서 한 일’로 보이게 한 것에서 선행의 공을 아버지에게 돌려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35. [출제의도] 형태소의 교체 이해하기

‘(얼굴이) 부어[부어]’에서 어간 ‘붓-’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어간 말 ‘ㅅ’이 탈락하여 ‘부-’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뭇이[머치]’, 비음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는 ‘뭇도[뎌또]’, 비음 앞에서는 ‘뭇만[면만]’으로 실현되어 각각 ‘뭇’, ‘뎌’, ‘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형태가 분포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아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술파[숍파]’, ‘술조차[쑤조차]’에서 ‘술’은 각각 ‘-ㅓ’, ‘-ㅓ’로 시작하는 형태소 ‘파’, ‘조차’와 결합하였지만 ‘숍’이라는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날씨가) 콧다[곤따]’에서 어간 ‘콧-’은 종성에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곤-’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글씨를) 적느라고[정느라고]’에서 어간 ‘적-’은 비음 앞에 ‘ㄱ, ㄴ, ㅂ’과 같은 평파열음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정-’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이형태 교체의 양상 이해하기

‘감자[감짜]’는 ‘감조차[감조차]’ (없다)와 비교해 보면, 어미 ‘-자’가 ‘ㅁ’ 뒤에서 교체된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라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감자[감짜]’에서 ‘-자’가 ‘-짜’로 교체되는 것은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라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① ‘고우니[고우니]’는 ‘(손가락이) 곱으니[고브니]’와 비교해 보면, 어간 ‘곱-’이 ‘-ㄴ’과 같은 모음 앞에서 교체된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고우니[고우니]’에서 ‘곱-’이 ‘-ㄴ’과 같은 모음 앞에서 ‘고우-’로 교체되는 것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② ‘짚는[짐는]’은 [짐는]으로만 발음할 수 있으며, 어간 ‘짚-’이 ‘짐-’으로 교체되는 것은 종성에 자음 ‘ㄱ’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과 비음 앞에 평파열음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된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짚는[짐는]’에서 ‘짚-’이 ‘짐-’으로 교체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라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③ ‘들어서[드러서]’는 ‘(땅이) 굳어서[구터서]’와 비교해 보면, 어간 ‘들-’이 ‘ㄱ’과 같은 모음 앞에서 교체된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들어서[드러서]’에서 ‘들-’이 ‘ㄱ’과 같은 모음 앞에서 ‘들-’로 교체되는 것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⑤ ‘묻고[물고]’는 [물고]로만 발음할 수 있으며, 어미 ‘-고’가 ‘-꼬’로 교체되는 것은 ‘ㄷ’과 같은 평파열음 뒤에 예사소리가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

태소의 형태가 교체된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묻고[묻꼬]’에서 ‘-고’가 ‘-꼬’로 교체되는 것은 된소리되기라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37.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과 높임 표현 이해하기

안건문장 ‘고향에 계신’에서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안건문장 ‘친척 어르신께 안부를 여쭙기’에서는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객체인 ‘친척 어르신’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안건문장 ‘오랜만에 뵈’에서는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객체인 ‘은사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안건문장 ‘머리가 하얗게 세신’에서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나 특수 어휘가 아닌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안건문장 ‘삼촌이 편하게 쉬시도록’에서는 주체인 ‘삼촌’을 높이고는 있으나 특수 어휘가 아닌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담화의 특성 이해하기

㉔은 예은, 세속을 지시하고 ㉕은 예은, 세속, 나라를 지시하고 있어 ㉔이 지시하는 대상은 ㉕이 지시하는 대상에 포함되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㉑에서 ‘이’는 ‘도즈기’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아츰’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㉑에서 ‘브르느다’와 달리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된 ‘잇느이다’는 상태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㉑에서 ‘님그믐’은 음성 모음이 사용된 체언 ‘님그’에 목적격 조사 ‘을’이, ‘오슬’은 양성 모음이 사용된 체언 ‘옷’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㉑에서 판정 의문문인 ‘만디기 모메 잇느녀’에는 종결 어미 ‘-녀’가, 의문사 ‘어디’를 사용한 설명 의문문인 ‘究羅帝 이제 어디 잇느뇨’에는 종결 어미 ‘-뇨’가 사용되어 서로 다른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㉑에서 ‘뜨-’, ‘뽕’과 같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 이해하기

위 강의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로 자기 다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강의 중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강사는 쌍방향 강의 중에 ‘밀랍 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라는 승범의 질문에 ‘뜨거운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진행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강의 중에 ‘우리 학교 누리집 ~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강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강사는 화상 강의 중에 ‘제시된 자료 화면은 ~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진행자가 공유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진행자가 화상 강의 중에 ‘준비가 다 되면 ~ 조금 더 기다릴게요.’, ‘모두 준비가 되셨네요.’라며 화면을 통해 학생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매체 특성 이해하기

㉑에서는 하이퍼링크로 웹사이트 주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밀랍 랩 활용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㉑에서는 ‘공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82명이 좋아합니다’를 통해 게시물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㉑에서는 ‘제가 써 본 밀랍 랩 사진이 예요.’라며 밀랍 랩의 실제 사용 모습을 사진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㉑에서는 ‘게시물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㉑에서는 ‘#밀랍랩’ 등과 같이 특정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㉑에서 ‘있겠네요’의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므로, 뜨거우면 밀랍이 녹을 수 있음을 추측하는 것이지 밀랍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㉑에서 ‘동의하신 대로’의 의존 명사 ‘대로’는 어떤 상태와 같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학생들이 사전에 동의한 바와 같이 강의가 녹화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㉑에서 ‘녹화됩니다’의 접미사 ‘-되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므로,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기보다 행위의 대상인 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㉑에서 ‘알았는데’의 연결 어미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사용하므로, 밀랍 랩을 만진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생각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㉑에서 ‘만져 보니’의 보조 동사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므로, 밀랍 랩을 만진 것이 시험 삼아 한 행동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학생 1’은 강의 내용 중 ‘그리고 밀랍은 국가 기관에서 ~ 인체에 대체로 안전하다’는 밀랍의 특성에 대한 강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강사님이 알려 주신 정보에 믿음이 갔어’라며 정보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활용 방식 분석하기

㉑에서는 챗봇 상담을 제안하는 ‘지혁’에게 ‘챗봇을 이용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며 답장 기능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이해하기

‘관심 있는 정보만 따로 모아 보여 주면 좋겠’다는 ㉑에 대해 ‘사용자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함께 제공하자’는 ‘희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인트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를 고려해 ‘포인트 적립 내역’이라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관심사 이외의 정보를 추천해 준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채팅 상담 운영 시간이 짧’다는 ㉑에 대해 ‘챗봇을 이용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시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질문을 해도 답변이 너무 늦’다는 ㉑에 대해 ‘챗봇을 이용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후 10:10’에 올린 질문에 ‘오후 10:10’에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앱 화면이 너무 복잡해서 공지 사항을 못 찾겠’다는 ㉑에 대해 ‘챗봇을 만들 때’에 ‘즐거 찾는 메뉴는 눈에 잘 띄게 배치하자’는 ‘지혁’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지 사항’과 같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가 상담 시작 부분에 뜨는 챗봇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흔히 하는 질문도 매번 채팅 창에 입력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㉑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거나 질

문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같이 띄우자’는 ‘시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기 검색어’, ‘자주 찾는 질문’ 메뉴를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